

3장 벤야민과 역사철학

◆1교시: 벤야민 역사철학 개관

▲ 역사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벤야민의 역사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적인 측면은 벤야민 사유를 통괄하고 있는 영역이다. 벤야민은 자기 자신을 문예비평가로 알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한 한편, 더불어 자신을 역사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면 많이 듣고, 일상용어화되어서 으레 그런 것, 역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벤야민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시간관이 문제가 된다.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집결되는 문제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도 일종의 시간철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철학이라는 것이 시간을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서의 시간, 인간과 관계된 시간이다. 역사는 시간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시간이다. 자연이 시간이 아니다. 바로 이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꾸어놓는 작업을 문명화과정(civilization)이라고 이야기한다.

벤야민이 다루고자 하는 역사의 문제도 문명화 과정에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거대담론이다. 우리가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던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시대가 되면서 소위 거대담론과 소담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대담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주축이 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역사의 문제이다. 역사와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문제시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역사철학이다.

역사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것은 역사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있다. 이것이 중구남방으로 과거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일들을 그때, 그때 일어난 우연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일관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철학적 태도를 역사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사라고 하는 것을,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과거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직결된다. 당대의 문제를 보고자 하는 시선이 또한 현재로부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소위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향화될 것인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보통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이를 근대적 시간관)에서 중요한 모티브이지만, 이 직선적 시간관과 직결되는 것이 역사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근본 시간관이다.

▲ 벤야민 역사철학 중점은 과거적 시간관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역사주의(히스토리즘)와는 다른 역사의 개념을 제시하려고 한다. 역사주의라고 하는 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직결된 것이 시간관이고,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역사주의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소위 직선적, 근대적 시간관이다. 시간을 화살과 비유하듯이, (떠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미 떠난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적으로) 시계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부른다. 시계는 거꾸로 돌지 않는다. 시계를 원형으로 만드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시계는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 속의 시간관은 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벤야민이 비판하고 있는 역사주의, 역사에 대한 태도와 벤야민이 새로 정립하고자 하는 역사개념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역사주의는 역사를 응시하고자 하는 시선이 미래에 향해있다. 이를 목적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역사주의는 역사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법적 시간관(과/현/미래)에서 “미래”에 있다. 이는 현재의 의미가 미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주의적 태도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보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미래에 투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은 새로운 역사개념의 핵심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점을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두는 것이다.**

과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과거주의자로서의 태도를 지닌다. 이 과거주의자로서의 태도를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저마다 삶의 태도를 갖지만, 이 태도 중에는 알게 모르게 시간에 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어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젊은 세대들의 경우), 나이를 먹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주의자가 된다.(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듯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주의자이다. 미래의 내가 달성해야 될 것,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위해서 현재를 좋게 이야기하면 경영하는 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든,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든, 우리는 모두 근대적 시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주의자이다. 미래를 설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근대적 세계관, 근대적인 세계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삶의 운동법칙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시간관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이해만이 아니라 역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역사와 연결된 개인의 삶과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벤야민의 역사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모티브이다.

벤야민에게 “과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과거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벤야민에게 중요한 시간적 포인트는 과거에 있다. 우리가 벤야민의 역사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벤야민에게 과거 시간이란 것은 무엇이나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의미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에서 중요한, 사유의 근간이 되는 것은 벤야민이 보고 있는 “근대”라는 시대이다. 모더니라는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모더니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소위 진보를 위한 삶의 태도이다. 이것이 현대인이 갖는 태도이다. 그러한 모더니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벤야민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과거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러면서도 모더니의 문제를 나름대로 성찰하려는 역사철학적 태도를 지닌다.

▲ 벤야민 사유의 양극성-메시아니즘, 사적 유물론의 태도

우리는 벤야민의 역사철학을 두고 이야기할 때, 벤야민의 사유가 원래 그렇지만 역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태도를 양극적 사유라고 한다. 벤야민 사유의 특성은 양극적 사유이다. 이 양극적이라는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2개의 경향, 2개의 사유가 팽팽하게 서로를 붙들고 있는,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함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서로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유태도, 양극적 사유라고 한다.

이는 벤야민의 사유에 항상 나타난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 그것을 사유의 중점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고 정신사적으로 볼 때 화합할 수 없다고 규정된 2개의 사유의 축을 똑같이 붙들고 그것들을 서로 긴장관계 속에 몰아넣으면서 그 긴장관계 속에서 충돌효과적 사유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철학, 예술철학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드러진 것이 역사철학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의 양극적 사유가 되고 있는 2개의 축 중 하나는 메시아니즘, 유대교적 사유의 시간관에서 빌려온, 메시아니즘이다. 크게 말하면 신학적 태도가 있다. 또 하나는 신학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적 유물론이라는 태도가 있다.

이 두 개는 사적 유물론과 신학이라는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2개의 인간사유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신학의 중점은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신에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일종의 사관이다. 그러나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지 신적인 영향권 내에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는 전제 하의 역사관이다. 신학적 태도와 유물론적 태도 사이에는 서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인간사를 바라보려는 영역과 유물론적으로 인간사를 바라보려는 영역은 유럽의 정신사에서 한 번도 서로 관계가 있는 식으로 되어 온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 사유의 특성은, 양극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태도와 유물론적 태도, 둘을 다 움

커지고 그 긴장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개념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은 상당히 논의가 많다. 이러한 시도자체가 사유의 대상자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있습니다. 결코 실증주의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문제를 벤야민은 철학의 문제로 내놓고 이를 신비주의적, 비의적으로 역사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는 비판적 태도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측면을 벤야민 사유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려고 하면서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유의 양상들을 벤야민 사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려한 태도도 있습니다. 벤야민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일종의 전선이 형성된다면, 그 전선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이 양극적 사유 때문이다.

오늘은 역사철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벤야민 역사철학의 근본적 테두리를 말씀드린 다음에 벤야민 텍스트 중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1-2 시간으로는 심층적 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제가 나눠드린 역사철학 테제를 꼼꼼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철학 테제같은 것들을 벤야민의 시간관이나, 벤야민 역사철학의 백그라운드화되고 있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혼자 읽을 수 없다. 벤야민을 읽으려면 이 텍스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끔 되어 있다.

▲ 텍스트 읽기 -역사철학 제1명제

나눠드린 텍스트에 첫 번째 명제가 있다.

역사철학 제1명제에 “사람들 말에 의하면 어떤 장기 자동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계는 어떤 어떤 사람이 장기를 두면 그때마다 그 반대 수를 뚝으로써 언제나 이기기끔 만들어졌다. 터어키 의상을 하고 입에는 수연통을 문 인형이 넓은 책상 위에 놓여 진 장기판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로 장치를 함으로써 이 책상은 사방에서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의 명수인 등이 굽은 난장이가 그 책상 안에 앉아서는 줄을 당겨 인형의 손놀림을 조종하였다. 우리는 철학에서도 이러한 장치에 대응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항상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소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리어지는 인형이다. 이 역사적 유물론은, 만약 그것이 오늘날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신학을 자기의 것으로 이용한다면, 누구하고도 한판 승부를 벌일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장기판을 하는 것을 은유하면서 이 신학과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양극적 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교시: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

▲ 사적유물론과 메시아니즘

장기판이 있대요. (직육면체)위에 자동인형이 앉아있고, 체스판에 그 인형은 항상 이기게끔 되어 있다. 맞추가 와서 장기를 두면 그 결과는 늘 이기는 자동인형이라면, 장기판은 전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이 전부 들여다보이게 된다. 여기서 얘기하기를, 다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런 환상을 불러일으키게끔 되어 있다.

워낙 언어를, 단어를 꼼꼼히 쓰고 단순히 설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숨은 의미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결정적인 것은 가장 작은 차이이기 때문이다. 사실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눈에 잘 안 띄는, 뉘앙스의 차이이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텍스트는 뉘앙스 안의 전략을 발견해야 한다.

“거울로 장치를 함으로써 이 책상은 사방에서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유리로 만들어 그 안이 다 보이지만 다 들여다보이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기판이다. 들여다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동인형이 항상 상대방이 맞추를 두게 되면, 그 맞추가 정확한 것이어서 인형이 항상 승리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장기판 밑에 난쟁이 하나가 앉아 있다. 지난 시간에 꼽추 난장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꼽추 난쟁이는 벤야민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난쟁이는 장기판 안에 있으며, 유리로 만들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서 앉아 있다.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인형의 줄을 잡아 장기판을 이기게 해두었다. 이것이 바로 인형은 사적 유물론이고 난쟁이는 신학이다. 결국은 사적 유물론이 그 어떠한 상대가 와서 싸우더라도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적 유물론은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신학을 자기 것으로 이용한다면”이라는, 첫 번째 테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A in D nehrnen(하인)이다. 이 말은 A를 영어로 하면 make A to serve B이다. A가 B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든다. “자기 것으로 이용한다.”는 번역이지만 to serve는 중요하다. 여기서 A는 신학, 난쟁이 꼽추이고, B는 벤야민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적 유물론이다. 누가 누구에게 봉사합니까?

신학이 사적 유물론에게 봉사한다. 벤야민 사유를, 사적 유물론이 신학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벤야민의 사유는 신학적 사유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텍스트에서 벤야민이 이러한 용법을 사용하면서 이미 끼워 넣고 있는 것은 벤야민 사유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벤야민은 철저히 사적유물론자이지 신학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사적 유물론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는 관계를 지닌다.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 벤야민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 쓸모없이, 기능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그 신학은 난쟁이 꼬추이다.

못생기고, 소외된 신학이다. 이 전제는 벤야민이 사적유물론이라는 역사철학적 명제의 시대는 “근대”이다. 근대라는 시대는 바로 신학적 사유와 단절이 되면서 태어난 시대가, 니체가 일찍이 이야기 한 시대, 신은 죽었다는 시대라는, 신의 사망선언과 더불어 태어난 근대라는 시대이다.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시대는 근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의 특성은 신학이라는 것이 난쟁이 꼬추일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는 사람들도 더 이상 보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신학 자체도 자기도 그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스스로 자기를 기능 폐기 시키고, 외부에서도 이미 기능폐기 시킨, 어떠한 대상인 그 신학이 바로 장기관 밑에서 사실은 조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사적 유물론이 그 어떠한 적들과도 싸워서 항상 승리하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난쟁이 꼬추로 이야기되고 있는 신학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명제는 역사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려면 사적 유물론 하나로 안 되고, 신학 하나로도 안 된다. 바로 사적 유물론과 신학이 연대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연대의 성격은 “serving for”라는 말을 통해서 그 중점은 사적 유물론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니즘과 사적 유물론이 어떻게 연대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명제에서 어떤 상황을 벤야민의 문학적 서술을 통해 문제제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조금 있다가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만, 벤야민의 이러한 상황, 역사철학적인 문제제기를 만드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역사철학적 명제가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문제를 알아야 한다.

▲ 벤야민의 시간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관이다. 벤야민은 시간관을 재정립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관은 몇 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시간관이다. 자연적 시간관은 생성, 소멸의 끝없는 반복을 말한다.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자연적 시간관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태어난 시간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화적 시간관이다. 신화적 시간관은 순환적 시간관이다. 바로 이 자연적 시간관은 끝없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2) 문명이라는 것은 civilization은 자연 상태를 인간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험벗은 자연 상태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원시인들의 생활은 자연 상태에서 지냈지만 말이다. 바로 인간은 그러나 동물들은 그 자연법칙에 따라 삽니다. 없으면 굶어죽고, 집을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자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노출되어 있다. 동물들에게는 끝없이 끝없이 내재해 있는 것이 자연에 대한 공포이다.

자연적 시간관을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로 만드는 작업이 문명화작업이다. 문명화작업은 2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발명하면서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명하면서이다. 인간의 최초의 발명품은 공간과 시간이다. 공간은 문명의 산물이다. 자연은 연장이라고 한다. 넓게 퍼져 있는 것이다. 우주는 연장이지 공간이 아니다. 우주는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공간은 경계가 없는 연장을 경계로 나눈 것이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 즉 경계가 없는 연장성을 경계가 있고, 구획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공간의 발명이다. 공간의 발명이 없으면, 인간이 경계가 없는 연장에서는 결코 자기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다.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없듯이 말이다. 왜냐하면 공간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간과 공간을 경계하면서 이쪽과 저쪽, 위와 아래가 생긴다. 내가 그 관계를 따져서 나의 지점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연장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3교시: 벤야민의 시간관의 이해를 위한 배경설명

▲ 벤야민의 시간관

시간이라는 것이 발명되어야 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운동을 통해서만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삶의 조건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분법으로 나눈다. 과거/현재/미래로 나눈다. 이 과거/현재/미래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서 있는 이시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고 있구나, 현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다. 현재라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구획해야 한다. 시간을 공간화해야 한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을 구획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바로 그런 식으로 공간, 시간도 없는 자연 상태라는 것을 공간과 시간을 도입해 소위 자연 개척을 하는 작업이 문명화작업이다.

호머의 『오딧세이』를 보게 되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지중해를 방황한다. 트로이를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페넬로페를 부인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호머가 노래하는 서사시의 내용이다. 트로이에서 이타카로 가는 사이가 지중해이다. 이 지중해는 수없이 많은 섬들로 널려 있는 바다이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이 오딧세이라는 호머의 서사문학이다. 이 건너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오딧세이는 건너가면서 항상 표류를 합니다, 각 섬나라를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다.

이 괴물들을 피를 통해 이겨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는 오딧세우스가 건너가기 이전에는 수많은 섬들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이름을 얻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섬에 가면 siren이 산다, 이 섬에 가면 kirche가 산다는 것처럼 말이다. 이 섬은 오딧세우스가 가기 이전에는 괴물들이 살지 않았다. 괴물들이 산다는 것은 이름 짓는 것이다.

이 섬들이 사이렌이 되고, 이 섬들이 키르케가 된다. 섬들의 이름이 생기면서 지도가 그려진다. siren에서 a, b, c라는 섬을 건너가면 kirche라는 섬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름이 없을 때에 지중해 바다를 가면 끝없는 수난과 반복만 있을 뿐이다. 한번 이름을 지어놓으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점이 형성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건너가는데, 무엇을 거쳐가야 하는 식으로 알게 된다. 알게되면 두 번 다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배회해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간 구성이다. 공간구성을 하는 동시에 시간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명이라는, 지역의 이름이라는 것도 자연 정복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벤야민의 언어철학에서 이름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보려고 하는 철학이 바로 언어철학에

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 이전에는 단순한 점들로 연장되었던 연장성이 오딧세우스에서는 누구의 섬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공간적으로 지도가 형성되고 시간이 태어난다.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면 a가 있다. “건너가게 되면”이라는 운동을 규정하는 시간개념이 태어난다. 그리고 a에서 b로 가게 되면 a는 과거가 된다. b에 도착하면 현재, 앞으로 갈 곳은 미래가 된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자연의 이름 없는 연장 시공간을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에 의해 개척, 지배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지배수단, 발명품이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문명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시간관에서 문명적 시간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문명적 시간관은 순환, 반복의 시간이 3분법적 시간(과거/현재/미래)로 바뀐다. 즉 원형적 시간관이 직선적 시간관으로 바뀐다. 바로 이러한 벤야민의 시간관에는 자연적 시간관과 문명적 시간관이 있다.

벤야민이 보려는 시간관은 이 문명적 시간관이 그 다음에 바로 종교적 시간관으로. 자연 상태가 역사화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보여준다. 자연적 시간관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으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는 기독교적 시간관으로 보여준다. 서양은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실제로 자연개척이나 자연의 문명화가 이루어졌다.

종교적 시간관도 물론 나누면 예컨대 태고적 시간관, 마술적 시간관, 신화적 시간관, 종교적 시간관 등등 많지만 종교적 시간관 중 기독교적 시간관을 이야기한다. 성서는 하나의 시간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직선적 시간관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구원”이다. 구원은 먼 미래에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을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부른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섭리의 역사이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모순투성이긴 한 것도 그러나, 신에 의지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동산이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인간세계가 있고, 인간세계는 천국(구원의 시간)으로 가는데 이 과정이 직선적 시간관이며 신은 개입하고 통제한다. 살아가면서 인간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 모순들, 그리고 우연적 사건들도 기독교적 시간관으로 보면 예정된 길을 따라, 구원의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아주 규칙적, 조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기독교적 시간관이 구원적 시간관이고, 기독교적 시간관에서 중요한 것이 “현재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다.

현재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라는 것은 기독교적 시간관에서 보면 과정일 뿐이다.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지 현재 자체가 자체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통적 기독교적 시간관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시간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근대적 시간관이다.

근대적 시간관은 무엇과 더불어 태어났습니까? 종교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화되면

서 태어난 것이 근대적 시간관이다. 근대적 시간관은 종교적 시간관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종교적 시간관도 미래를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지만, 시간의 주인은 신이 통제하고 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근대선언을 했을 때, 신은 죽었습니까? 근대는 신의 사망선언과 더불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이 바뀐 것이다. 신이 인간으로 바뀐 것이다. 일종의 찬탈이다. 왕위를 빼앗은 것이다. 신이라는 왕위를 인간이 바로 자기가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적 시간관의 특성은 신적 시간관의 통제자인 신을 거부하고 시간의 통제자가 인간, 자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벤야민이 보고자 하는 모순은., 근대적 시간관의 실제로 종교적 시간관과 바뀌었느냐? 오히려 벤야민이 볼 때 종교적 시간관이 강화된 것이 근대적 시간관이다. 소위 근대, 모던이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진보적 시간관을 주축으로 한다.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데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인간이 주인이 되면서,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미래의 문제를 신의 통제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근대적 인간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의 선언이다. 그리고 근대적 목적,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성이다.

인간에게는 칸트가 이야기 한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성을 갖대로 사용하고 이성에 충실하다면 외적인 조건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인간다운 세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체계가 근대이다. 근대에는 2개의 개념 진보라는 표현과 유토피아라는 것을 표현한다. 천국이 유토피아로 변했다. 천국은 신의 도움을 받아야 도달하는 것이지만 유토피아는 인간이 스스로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이다.

근대선언과 더불어 시간관이 동시에 태어나 근대적 시간관, 목적주의적 시간관이라 부른다. 근대적 시간관은 ■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끊임없이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가는 진보적 시간관이다. 벤야민이 다루려는 것이 진보적 시간관에 대한 비판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시간관에 주인이 누구냐? 라는 문제이다.

벤야민은 바로 이 역사적 시간인데, 다름 아닌 근대적 시간관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력은 부르주아이고, 부르주아를 지배계급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왜 지배계급이냐면 근대의 여러 모순관계들 때문이다(프랑스 혁명이나 계몽처럼). 중요한 것은 근대적 시간관을 통해 근대적 시간이라는 것을 통제하는 주인들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 주인들이 역사의 모순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역사의 모순이라면 그 모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르주아계급이고, 부르주아계급이 지배적 계급이고, 지배계급들이 진보적 시간관을 통제하는 계급이라고 이야기한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의 근본적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맑스의 혁명론을 수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르주아 사회를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 벤야민 역사철학의 중요한 의도였기 때문이다. 벤야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지배계급을 통제하고 있

는 근대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바, 역사적 시간관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시간관을 통해 본 벤야민의 역사관

벤야민이 역사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적 시간관을, 벤야민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벤야민의 역사라는 것은 형용사를 더 붙이면 “진정한”을 붙여야 한다. 진정한 역사적 시간을 마련해야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전복시켜야 하겠다는 벤야민의 유물론적 역사관이 나타난다. 벤야민이 바로 근대적 시간관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아님, 근대적 시간관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벤야민의 혁명은 물질관계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벤야민은 근대적 인간관을 실제로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아님 시간관이라고 본다. 이 시간관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역사적 시간관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다른 아님 우리가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한 시간관이다. 이 시간관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라고 생각해온 역사관을 전복하는 것이다. 즉, 역사를 다시 생각하기와 시간을 다시 생각하기의 만남은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배계급의 시간관이라는 것이 벤야민의 생각에 따르면, 소위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관념론과 유물론을 가르는 기점이다. 독일철학을 이야기할 때, 맑스와 헤겔과의 관계, 관념론과 유물론의 관계이다. 헤겔식의 관념론에 따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니 물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물질세계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온 것이 관념론이다.

이 관념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관념론이 하나의 시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시간관은 근대적 시간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다. 헤겔의 변증법은 명제와 반명제가 만나 합을 만들어내고 합이 다시 명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반명제가 생기고 그 반명제가 합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이 끊임없이 인간의 정신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모순관계를 끊임없이 해결하고 지양해나가는 하나의 운동이 인간의 정신운동 속에 있고, 이것이 하나의 연속성을 갖는다. 이 연속성은 마지막 하나인, 이 절대정신을 향해 간다.

즉 아무런 모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정신 상태이다. 그것을 헤겔은 절대정신의 상태라 불렀고, 절대정신의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소위 명제와 반명제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운동이 끊임없이 자기를 점점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마지막 지점이 절대정신이라는 상태이다.

이것이 헤겔이 갖는 정신현상의 운동법이다. 헤겔의 변증법적 정신현상학은 철학의 정신현상학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하나의 철학적인 관념이다. 헤겔철학이 철학적인 면을 떠나 사회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헤겔 철학은 당대 헤겔이 살고 있는 부르주아

사회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적 장치이다.

헤겔이 살고 있었던 당대의 사회가 여러 가지 모순을 끼어 안고 있지만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변증법적 운동이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절대정신이다. 완벽한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상태로 건너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철학적 모델이다. 헤겔의 관념론은 단순한 철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당대 사회를 합리화하기 위한, 부르주아사회를 이상화시키기 위한 철학적 옹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념론에 대해서 페러다임을 바꿔버린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유물론적이다. 맑스가 이야기하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신의 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다.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관계가 변하게 되면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